

2012
December 14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 동향

정책동향

- [미국] 미 정부, 'AIDS 없는 세대' 프로그램 추진
- [일본] 일 중의협,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 설정 기준 제정
- [호주] 세계 최초 금연 '플레인 패키징' 정책 시행
- [중동] 사우디 보건부, 임산부 국영병원 HIV 검사 의무화

산업동향

- [미국] 미 화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등 33개주에 4천3백만불 벌금
- [일본] 일 소니, 초정밀 피부분석 센서 'SSKEP' 개발
- [영국] 영 케임브리지대, 혈액세포 → iPS세포 전환 성공
- [일본] 일 시세이도, '플레드뽀보떼' 브랜드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신규보고서

- [미국] 미국임상종양학회 선정, 올해의 5대 임상시험
- [글로벌] 글로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 시장 전망

포커스

-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 동향 1

정책동향

- [미국] 미 정부, 'AIDS 없는 세대' 프로그램 추진 5
- [미국] 미 정신의학회, 정신질환진단 대폭 개정 ... 건보 산정기준 변경 불가피 5
- [일본] 일 중의협,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 설정 기준 제정 6
- [호주] 호주, 세계 최초 금연 '플레인 패키징' 정책 시행 6
- [아시아]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 정부에 비만세 도입 촉구 7
- [중남미] 중남미, 낙태 합법화 논란 확산 ... 우루과이, 국민투표 가능성 7
- [EU] 스페인 의료계, 정부 긴축 정책에 강력 반발 8
- [중동] 사우디 보건부, 임산부 국영병원 HIV 검사 의무화 8

산업동향

- [미국] 미 응급의학 발달, 흉기범죄 증가 불구 사망자 감소 9
- [미국] 미 화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등 33개주에 4천3백만불 벌금 9
- [중동] 이스라엘 테바, 경쟁 격화 대비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10
- [일본] 일 소니, 초정밀 피부분석 센서 'SSKEP' 개발 10
- [미국] 미 메이요클리닉, '메트포르민' 난소암 치료 효과 확인 11
- [영국] 영 웰컴트러스트생어연구소, "인간 DNA 변이 평균 4백개" 11
- [영국] 영 케임브리지대, 혈액세포 → iPS세포 전환 성공 12
- [일본] 일 교토대, iPS 세포 대량 배양법 개발 12
- [일본] 일 도호쿠대, 신체 비만 메커니즘 규명 13
- [일본] 일 시세이도, '끌레드뽀보떼' 브랜드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13
- [일본] 일 가네보, '15년까지의 성장전략 발표 14
- [미국] 로레알 USA, 플로렌스 헤어케어 공장 확충 14

신규보고서

- [미국] 미국임상종양학회 선정, 올해의 5대 임상시험 15
- [글로벌] 글로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 시장 전망 16

포커스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 동향

말레이시아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96년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구상'의 중점 영역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선정. 본 자료는 일본 NIT DATA가 '12년 11월 발표한 '말레이시아 원격의료 동향(マレーシアにおける遠隔医療の動向)'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 동향과 전망을 고찰

□ 개요

- (MSC 구상) '9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인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MSC) 구상'을 발표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를 7대 중점 영역 중 하나로 선정
 - 말레이시아는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구상' 실현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97년에는 디지털 서명법, 컴퓨터 범죄법, 지식소유권법과 함께 원격의료법(Telemedicine Act) 등 4개 사이버 법률을 제정
- (원격의료법) 원격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음성·영상·데이터통신을 이용해 실시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원격의료 규정과 감독체계를 규정
 - 원격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의사만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원격진료가 가능

□ 주요 원격의료 추진정책

- (MSC 원격의료 구상)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구상'에서 발표된 원격의료 구상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전체 의료서비스 관계자 연결을 목표로 총 4개 프로젝트를 시행
 - 원격 진료 시행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자,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의료 관련 분야 전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반드시 필요

<표>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원격진료 구상의 4대 프로젝트 개요

대량 맞춤 건강 정보·교육(Mass Customized/Personalized Health Information and Education)
- 멀티미디어 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건강 관련 정보 및 교육 콘텐츠를 전송해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
지속적 의학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 멀티미디어 통신기술을 통해 의료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원격진료(Teleconsultation)
- 멀티미디어 통신기술을 통해 진료소와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진료소 의료종사자의 고립을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라이프타임 건강 플랜(Lifetime Health Plan)
-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 상태를 기초로 건강 플랜을 제공 - 하위 애플리케이션으로 ①진료지원시스템 :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작성하는 의사나 병원이 이용, ②헬스케어정보 관리·지원 서비스 : 전자의료기록에 입각해 라이프타임 건강 정보 및 건강 플랜을 집적, ③퍼스널 라이프타임 건강플랜 : 개인의 평생 건강에 대한 건강 플랜을 작성 등을 시행

* 말레이시아는 병원 이외에 많은 진료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의료 격차 시정을 위해 도입한 진료소에는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나 의료조수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

- (보르네오섬 사와라크주 원격의료 도입) 보르네오섬은 복잡한 열대우림 지형으로 환자 이송이 어려워 말레이시아 정부는 '04년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인 '텔레프라이머리케어'를 시작
 - '04년 출범 당시 사와라크주 통신인프라 정비 상황에 따라 통신위성(Vsat) 또는 IP-VPN 등을 이용해 17개 진료소와 4개 지구보건국을 이 지역 핵심 의료기관인 시부병원과 연결
 - 텔레프라이머리케어 시스템에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포함되며, 진료 서비스 이외에 진료소의 기본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통일해 네트워크로 공유
 - 사와라크주는 진료소에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를 배포함으로써 디지털화된 X선 영상·사진을 병원으로 전송해 진단받는 간이방식을 성공적으로 시행
 - '09년까지 텔레프라이머리케어 시스템을 통해 1천5백명의 등록 유저가 45만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230만회의 진료 자료를 기록

<표> 텔레프라이머리케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항목	기능
환자관리	등록, 예약, 진찰대기 순서관리, 근무일지표, 회계
진료관리	진료플랜, 원격진료, 화상회의
약국	처방전, 재고관리
오더	연구실 검사, 방사선과
건강프로그램 (Wellness)	모자(母子)보건, 학교보건
역학	자동통지, 경보
보안·관리	개인정보, 자산관리, 품질보증
데이터관리	보고서 작성, 데이터 마이닝

□ 원격의료 추진정책의 성과 및 실패

- (교육 포털 출범)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원격의료 구상 4개 프로젝트 중 '대량 맞춤 건강 정보·교육'의 성과로 '06년 MyHealth 포털, '지속적 의학교육'의 성과로 myCPD 포털이 출범
 - MyHealth 포털은 다양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건강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09년 8월말 현재 접속자는 약 70만명에 이르며 7천210명의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
 - 'myCPD 포털'에서는 사용자의 연수 이력 관리와 연수 계획 작성, 사용자의 상사가 연수 필요성 평가와 연수를 배정이 가능
- (원격진료 프로젝트 확대) 텔레프라이머리케어는 현재 보르네오섬 3개州 69개소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원격진료 과목 범위 확대, 고도의 의료서비스 실시 등의 성과도 달성
 - (순환기계) 심전도, X선, 혈관조형사진, 초음파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소견서와 함께 전문병원에 전송하는 구조
 - * 말레이 반도 북부 4개州 4개 병원, 보르네오섬 사바하 3개 병원의 2개 네트워크가 가동
 - (신경외과) 신경외과는 인재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서도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텔레프라이머리케어에서는 현재 6개 핵심병원과 지역 23개 병원을 연결해 진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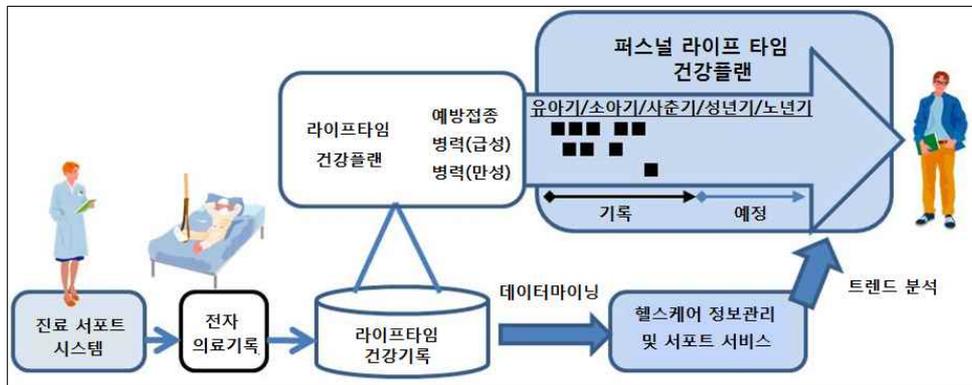
- (피부과) 디지털 사진으로 환부를 찍어 진단받는 구조로 피부명이 만연한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르네오섬 사바주 5개 병원과 쿠알라룸푸르 병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 피부병은 조기에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처치하면 치료효과가 높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원격진료의 효과가 특히 높은 분야

- (라이프타임 건강플랜 실패) 교육 포털이나 원격진료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라이프타임 건강플랜 프로젝트는 실패

-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작성하고 그 데이터를 통합해 환자의 일생을 커버하는 전자의료기록과 건강플랜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목표였지만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무기한 연기를 발표

<그림> 라이프타임 건강 플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원격의료 전망

- (전망) 말레이시아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유아사망률 저하, 고령화, 질병패턴 변화, 의사부족 및 지역격차, 의료비 증가 등 다른 신흥국과 유사한 변화와 과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
-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프로젝트는 일정 성과를 거뒀으며, 의사의 부족과 편중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원격의료를 계속 확대할 계획
- 의료관련 분야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당초 MSC 원격의료구상은 실현되지 못해 원격진료에 따른 부분적인 의료정보 공유가 의료분야 전체의 데이터 연계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부각

정책동향

미 정부, 'AIDS 없는 세대' 프로그램 추진

- 미국 정부는 전세계에서 AIDS를 추방하는 'AIDS 없는 세대(AIDS-fre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
 -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03년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HIV 확산 방지에 기여한 'AIDS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 PEPFAR)' 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
 - 또 △HIV 치료 대상 확대 △포경 수술 장려 △콘돔 보급 지원을 포함한 AIDS 예방 조치와 함께 AIDS 환자와의 상담도 강화할 방침
 - 미국 정부는 '03~'10년 AIDS·결핵·말라리아 퇴치에 460억불을 투입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13년 PEPFAR를 중심으로 한 AIDS 퇴치 프로그램 예산으로 64억불을 편성 [Science and Development Network, 2012.12.07]

미 정신의학회, 정신질환진단 대폭 개정 ... 건보 산정기준 변경 불가피

-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PA) 이사회는 '정신질환진단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5)'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

<DSM-5 개정 주요 내용>

개정전	개정후
○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 ASD)를 광범위한 발달장애를 일컫는 비공식 용어로 사용	○ ASD를 공식명칭으로 인정하고, 가벼운 형태의 자폐증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발달장애를 ASD에 포함
○ 분노발작(temper tantrum) 용어 사용	○ 분열적 기분조절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 DMDD)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신장애의 일부 분으로 인정
○ 난독증(dyslexia) 용어 사용	○ 난독증 용어를 폐지하고, 학습장애라는 넓은 범위의 정신장애에 포함
○ 성정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용어 사용	○ 성혐오감(gender dysphoria)으로 수정

- 개정판은 '13년 5월부터 적용되며, 건강보험 산정기준 변경과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혜택 등에 변화가 불가피 [ProHealth, 2012.12.10]

일 중의협,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 설정 기준 제정

-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는 특허가 만료된 선발 의약품의 가격 설정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
 - 이는 특허가 만료된 선발 의약품이 후발 의약품으로 대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선발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후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목적
 - * 선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되면 성분이나 효과가 동일한 저렴한 후발 의약품에 점유율을 잠식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일본에서는 그 폭이 작아 의약품 시장에서 후발 의약품의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중의협은 내년부터 가격 설정 기준 논의를 시작해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4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2.12.05]

호주, 세계 최초 금연 '플레인 패키징' 정책 시행

- 호주 연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제조업체의 로고, 색깔, 홍보 문구와 이미지 부착을 금지하는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 정책을 시행
 - 이에 따라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담뱃갑에는 혐오스러운 경고 사진과 문구가 전면에 확대돼 표시되는 반면 담배상표는 하단에 작게 표시
 - 호주 연방정부는 강력한 플레인 패키징 정책을 통해 지난 '07년 16%였던 흡연율을 오는 '18년까지 1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



* 호주에서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만5천명에 이르는 가운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백억 호주달러(약 34조원)로 추정

- 그러나 BAT 등 담배업체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불법으로 담배가 제조되고 동남아로부터 담배가 밀수돼 지하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노출 [Healthcare Today, 2012.12.04]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 정부에 비만세 도입 촉구

-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와 오타고대 공동 연구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탄산음료와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fat tax)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
 - 연구팀이 32개 고소득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 가격이 1% 인상되면 포화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가 0.02% 감소됨을 발견
 - * 또 청량음료 가격이 10% 인상되면 제품 소비가 최대 24% 감소하고, 반대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10% 인하되면 소비는 8%까지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
 - 연구팀은 **탄산음료와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하고 과일과 채소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면** 음식물 섭취에 변화가 초래되어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강조
 - 연구팀은 그러나 정부가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이 건강식품보다는 정크푸드 구매에 사용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 [New Zealand Herald, 2012.12.12]

중남미, 낙태 합법화 논란 확산 ... 우루과이, 국민투표 가능성

-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중남미에서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 중남미에서는 쿠바·푸에르토리코·가이아나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07년부터 낙태를 허용
 -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볼리비아 등에서는 성폭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낙태 합법화를 둘러싸고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첨예하게 대립
 - 이런 가운데 호세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
 - * 무히카 대통령은 임신 12주 이내 여성이 전문의의 진찰을 거쳐 낙태 수술을 받는 제한적 낙태 허용법안을 공표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입장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2012.12.03]

스페인 의료계, 정부 긴축 정책에 강력 반발

- 스페인 의료계가 중앙정부의 보건예산 삭감 및 지방정부의 공공 의료기관 민영화 계획에 강력히 반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 의료계는 11월에 항의 시위를 시작한 후 반대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경찰 추산 5천명(주최측 추산 2만5천명)이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
 - 의료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이 기존 의료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내용으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발
 -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긴축재정을 위해 보건예산에서 70억 유로를 삭감한 데 이어,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20개 공공 의료기관 중 대형병원 6개와 진료소 27개의 민영화를 추진
 - *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보건·교육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지출 규모는 국가 전체의 40% 정도이나 부채가 현재 총 1천450억 유로이며 올해 안으로 360억 유로를 차환해야 하는 상황

[AP, 2012.12.10]

사우디 보건부, 임산부 국영병원 HIV 검사 의무화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AIDS 발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영병원에서 임산부의 HIV 감염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
 - 사우디 슈라보건심의위원회(Shura Council Health Committee) 모흐신 알 하제미(Mohsin Al Hazemi) 위원장은 보건부 지침에 따라 모든 임산부는 임신 초기에 HIV 감염 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
 - * 슈라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 분야와 관련해 국왕에 자문하는 기구
 - 하제미 위원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관련 검사가 이미 실시 중이라고 소개
 - 한편 슈라보건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AIDS 환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AIDS 환자를 보호하며 △AIDS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사회가 신속히 활동하도록 규정한 AIDS 예방법 초안을 승인

[Gulf News, 2012.12.10]

산업동향

미 응급의학 발달, 흉기범죄 증가 불구 사망자 감소

- 미국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총과 칼 등 치명적인 흉기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감소
 - 미 질병예방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료에 의하면 총에 맞아 입원한 사람은 지난 '01년 2만844명에서 '11년에는 3만759명, 칼에 찔려 입원한 사람도 2만2천47명에서 2만3천550명으로 증가
 - 그러나 하워드-홉킨스 외과연구센터(Howard-Hopkins Surgical Outcomes Research Center) 조사에 의하면 '10년 총상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13.96%로, '07년보다도 2% 포인트 감소
 -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각 분야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치, 환자 이송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보유하면서 치명상을 입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분석
 - 또 응급의학 발달에는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부상자를 치료하며 축적한 치료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

[Wall Street Journal, 2012.12.08]

미 화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등 33개주에 4천3백만불 벌금

- 미 화이자(Pfizer)는 항생제 자이복스(Zyvox)와 신경병성 진통제 리리카(Lyrica)에 대한 불법 마케팅 혐의를 인정, 노스캐롤라이나에 130만불을 비롯, 33개주에 총 4천3백만불의 벌금을 납부할 방침
 - 화이자는 자이복스가 구체적 증거 없이 특정 유형의 감염 치료에 다른 회사 제품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리리카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적응증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한 사실을 시인
 - 화이자는 과거에도 위궤양 치료제 프로토닉스(Protonix)의 불법 마케팅 혐의로 5천5백만불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을 보유 [BusinessWeek, 2012.12.12]

이스라엘 테바, 경쟁 격화 대비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 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Teva)가 '13년에는 경쟁 격화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 테바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 성분명 :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의 강력한 경쟁제품으로 미국 바이오젠아이덱 (Biogen Idec)의 경구 신약 ‘BG-12’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
 - * 테바는 지난 1~9월 코팍손으로만 29억4천만불의 매출을 기록
 - 테바의 '13년 예상 매출은 195억~205억불, 주당순이익(EPS)은 4.85~5.15 불로 올해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
 - 테바는 향후 5년간 △원료물질 공급원 변경 △부동산 매각 △R&D 및 정보기술 투자 재검토 △주문에서부터 창고관리까지 각종 기능 통합 등을 통해 15억~20억불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
 - 그러나 중추신경계 장애 등 전문 중심 분야에서 인수합병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 [PMLiVE, 2012.12.03]

일 소니, 초정밀 피부분석 센서 ‘SSKEP’ 개발

- 일본 소니가 피부 내부의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정밀 센서 ‘소니 스마트 피부 평가 프로그램(Sony Smart Skin Evaluation Program : SSKEP)’을 개발
 - SSKEP는 첨단 센서기술과 초고속 이미지 처리기술이 결합, **피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다각도에서 파악·분석하는 기능을 보유**
 - 소니는 SSKEP가 시모스(CMOS) 이미지 센서를 통해 이미지 포착 과정을 적절하게 제어해 피부 내외피층을 고광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고도로 정밀한 피부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
 - * 또 SSKEP에는 정량평가, 화소별 분석, 이미지 처리 및 형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피부조성 실태의 시각화 등 기능이 있다고 강조
 - 소니는 SSKEP가 뷰티업계에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지향적 신제품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Vision Systems, 2012.12.10]

미 메이요클리닉, ‘메트포르민’ 난소암 치료 효과 확인

-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팀은 1일 복용 비용이 1.30 파운드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metformin)’에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암(Cancer)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난소암 환자 73명과 복용하지 않는 환자 178명의 예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이 메트포르민군은 67%, 대조군은 44%로 나타났다고 설명
 - * 각 환자의 병기를 고려할 경우 5년 생존율은 메트포르민군이 대조군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
 - 연구팀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
 - 한편 메이요클리닉의 발표에 앞서 미국 UCLA대 연구팀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메트포르민을 복용할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평균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 [Daily Mail, 2012.12.03]

영 웰컴트러스트생어연구소, “인간 DNA 변이 평균 4백개”

- 영국 웰컴트러스트생어연구소(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DNA 변이를 **평균 4백개**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인간유전자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지난 '08년 시작된 국제 연구사업 ‘1,000 게놈 프로젝트’의 자료와 자신들이 별도 연구한 179명의 유전자 자료를 비교, 이 같은 결론을 도출
 - * 1,000 게놈 프로젝트는 각 개인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와 질병과 유전 사이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외견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유럽·미주·동아시아인 1,000명의 유전자 염기서열 전체를 해독한 연구사업
 - DNA 변이는 대부분 본인의 건강과는 무관하나 후손에 유전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 돌연변이이며, 나머지는 암이나 심장 질환 등 노년기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BBC News, 2012.12.07]

영 케임브리지대, 혈액세포 → iPS세포 전환 성공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혈액세포를 유도만능줄기(iPS)세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줄기세포 : 병진의학(Stem Cells : Translational Medicine)’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채취된 혈액에서 줄기세포 기능을 지닌 ‘후기내피전구세포(late outgrowth endothelial progenitor cell : L-EPC)’를 분리, iPS세포로 전환
 - * L-EPC는 손상된 혈관벽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심근세포와 혈관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특성도 보유
 - 연구팀은 L-EPC에 줄기세포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향후에는 혈액샘플에서 L-EPC를 분리해 냉동보관한 뒤 필요할 때 iPS로 전환시켜 심근세포와 혈관세포 등으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VR Zone, 2012.12.01]

일 교토대, iPS 세포 대량 배양법 개발

-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효율적으로 대량 배양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지를 통해 발표
 - iPS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자라게 하는 배양기질(培養基質)이 필요한데 연구팀은 인간의 세포를 구분하는 단백질인 ‘라미닌(laminin)’이 배양기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착안, 라미닌을 iPS 세포 배양에 사용
 - * 지금까지는 동물에서 채취한 배양기질이 이용되고 있지만 미지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
 - 그 결과 iPS 세포 1개가 1개월만에 약 1백만개로 증가, 기존 방법(5천개)에 비해 효율성이 2백배 정도 높아졌음을 확인
 -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면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안정성을 높은 상태에서 iPS 세포를 대량 배양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향후 재생의료 부문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読売新聞, 2012.12.05]

일 도호쿠대, 신체 비만 메커니즘 규명

-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고칼로리를 섭취하면 뇌가 기초대사를 담당하는 갈색지방의 작용을 저하시켜 비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먹이를 쥐에게 주자 뇌가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지방을 태우는 갈색지방 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내장지방이 증가하면서 칼로리 소비가 낮아져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
 - 그러나 연구팀이 간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을 절단한 뒤 고칼로리 먹이를 주자 갈색지방의 활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신체의 영양 비축 메커니즘이 규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日本經濟新聞, 2012.12.05]

일 시세이도, '끌레드뽀보떼' 브랜드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 일 시세이도(Shiseido)가 모스크바 현지법인을 통해 고급 화장품 브랜드 '끌레드뽀보떼(Cle de Peau Beaute)'를 러시아 시장에서 발매하기 시작
 - 시세이도 현지법인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최고급 백화점 TSUM에 끌레드뽀보떼의 스킨케어 및 색조화장품 총 45종을 공급
 - 끌레드뽀보떼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기존 선진국 화장품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끌레드뽀보떼는 시세이도가 '글로벌 메가 브랜드' 전략 아래 판촉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 브랜드
 - * 시세이도는 오는 '17년까지 '일본에서 설립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부상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메가 브랜드 전략을 수립
 - 현재 끌레드뽀보떼는 일본·한국·중국·대만·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미국 및 캐나다에서 발매되고 있으며, 시세이도는 '14~'16년 유럽시장에서도 판촉 활동에 나설 예정

[4-Traders, 2012.12.03]

일 가네보, '15년까지의 성장전략 발표

- 일본 가네보(Kanebo)가 국내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핵심 화장품 브랜드를 통해 견고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15년까지의 성장전략'을 발표
 - 내수 시장에서는 트와니(Twany), 리사지(Lissage), 코후레 도르(Coffret D'or), 밀라노 컬렉션(Milano Collection), 에비타(Evita) 및 현재 개발 중인 스킨케어 브랜드 1종과 헤어케어 브랜드 1종 등 총 7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
 - 글로벌 시장에서는 센사이(Sensai), 가네보(Kanebo), 루나솔(Lunasol), 케이트(Kate) 후렛셀(Freshel) 5개를 핵심 브랜드로 육성하는 가운데 특히 가네보 브랜드를 통해 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
 - 이와 함께 온라인 소매 유통이 확산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소비자와의 온라인 대면도 강화할 계획
 - 가네보는 이러한 성장 전략으로 현재 6% 수준인 영업수익성(operating profitability)을 '15년까지 10%로 올릴 계획[Premium Beauty News, 2012.12.11]

로레알 USA, 플로렌스 헤어케어 공장 확충

- 프랑스 로레알 미국지사(L'Oreal USA)는 날로 증가하는 브랜드 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켄터키주 플로렌스 헤어케어 공장을 확충할 계획
 - 현재 플로렌스 헤어케어 공장은 56만ft² 부지에 2백여 직원이 근무중이며 가르니에 프럭티스(Garnier Fructis), 로레알 파리(L'Oreal Paris), 소프트쉬-카슨(Soft Sheen-Carson) 등 브랜드 제품을 매년 1억6천5백만 유닛(unit) 생산
 - 헤어케어 공장은 향후 부지가 11만ft² 확대되고 2백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서 로레알 그룹의 대표적 공장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
 - 새로운 공장은 특히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본사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 환경친화성을 더욱 높일 계획
- * 로레알 USA는 지난 '05~'11년 제품을 생산하면서 물 소비량을 18% 절감

[CosmeticsDesign-USA, 2012.12.04]

신규보고서

미국임상종양학회 선정, 올해의 5대 임상시험

-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ASCO)는 '12년 12월 올해 미국 암 치료 향상에 기여한 5대 임상시험을 선정한 보고서 “12년 임상암진전(Clinical Cancer Advances 2012)’을 발표
- 보고서는 올해에 주목할 만한 87건의 임상시험 가운데 이들 톱 5를 선정

<'12년 임상시험 톱 5>

	임상시험	개관
1	진행 유방암 치료 (I)	○ 폐경 후 발생하는 HER2 양성 유방암에 호르몬과 화학요법(트라스투주맵+ 도세탁셀)을 병행하고 퍼투주맵을 추가 투여할 경우 유방암 환자 생존기간이 연장
2	진행 유방암 치료 (II)	○ 트라스투주맵과 약물결합항체 DM1을 결합해 사용할 경우 대조군(카페시타빈+ 라파티닙)에 비해 유방암 환자 생존기간이 연장
3	식도암 수술 전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화학요법(카르보플라틴+ 파클리탁셀)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집단과 수술만 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수술 전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한 집단에서 식도암 환자 생존기간이 연장
4	대장암 치료	○ S상결장경 검사(flexible sigmoidoscopy)를 실시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
5	진행 전립선암 치료	○ 경구 안드로겐수용체(AR) 시그널 억제제 엔잘루타마이드를 투여할 경우 진행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

- 한편 보고서는 그동안 암 임상시험이 발전함에 따라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70년대 1/2에서 현재는 2/3로 높아졌고 △증가 추세였던 암 사망 비율은 '90년대 이후 18% 감소했으며 △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면서 암 환자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

글로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 시장 전망

- 글로벌 제약·의료 시장 조사업체인 미국의 디시전 리소시스(Decision Resources)는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성 폐암의 치료제 시장을 전망한 보고서 ‘비소세포성 폐암(Non-Small-Cell Lung Cancer)’을 '12년 12월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1년 46억불이었던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오는 '21년에는 6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비소세포성 폐암은 소세포성 폐암(Small-Cell Lung Cancer)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도 천천히 진행되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을 통칭
- 비소세포성 폐암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과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발생이 억제되겠지만 고령화 진전 등 인구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제네릭 제품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미 화이자의 ‘zell코리(Xalkori, 성분명 : 크리조티닙)’를 비롯해 효과가 우수한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을 선도해 온 미 일라이릴리의 ‘알림타(Alimta, 성분명 : 페메트렉시드)’는 제네릭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향후 글로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는 제약업체간 공동개발이 확산되고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치료 성공률이 높고 의료보험에도 적용되는 고가의 맞춤형 치료제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
 -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대부분 특정 분자 표적을 타겟으로 한 제품으로, 기존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안전성과 효능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
 - *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 제품으로는 미국 화이자의 ‘다코미티닙(Dacomitinib)’과 BMS의 ‘니블루맙(nivolumab)’,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의 ‘툼토보크(Tomtovok)’, 스위스 로슈의 ‘메트맙(MetMAb)’ 등
 - 한편 보고서는 ALK 융합 유전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미 애보트의 ‘바이시스 진단키트(Vysis ALK Break Apart FISH Probe Kit)’를 이용한 폐암 검사법을 높이 평가